

스포츠는 과학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조건이다. 융합은 비슷한 것을 연결하여 창의적 생각이나 정책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 가치가 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 이외에 스포츠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는 스포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광주는 2002 월드컵 4강 신화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도시'다. 어떤 도시로 역사에 남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창의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융합 통해 구축돼야

2020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일상에서의 스포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상에서의 스포츠 활동 제약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다.

스포츠가 곧 과학이 된지 오래다. 수영에서는 전신 수영복이 수영계를 발각 뒤 집었지만, 기술 도핑 논란이 제기되어 2009년 5월 남성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여성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수영복 착용을 허용하면서 전신 수영복은 퇴출됐다.

전 매 광 장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센터장



스포츠 '창의적 혁신' 이 답이다

육상에서는 마법의 신발이라고 불린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 시리즈가 2016년 공개되어, 2019년 케냐 마라톤 선수 김초계가 이 신발을 신고 42.195km를 사상 최초로 1시간 59분 40.2초에 주파했다(물론 비공식기록이다). 2020년 1월 오사카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는 상위 10명의 선수 중 8명이 '베이퍼 플라이'를 신을 정도로 스포츠 과학은 경기력과 밀접하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및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한 홈트레이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용자 중심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확산된 일상적 스포츠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담뱃 이코노미(건강과

체력관리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현상)가 성장하고, 기존 스포츠 종목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융합이 뒤따를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스포츠 영역은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 진행되고, 이에 걸맞은 정책제안을 위한 경쟁과 소통, 제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 혁신은 긴 호흡을 가지고, 넓고 깊은 담론을 통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국가전략에 발맞춘 창의적 혁신이다.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 기술 개발에 인공지능과 스포츠와

학 빅데이터를 융합한다면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태초에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낯설게 보이는 능력이 '창의력'이다. 광주는 지난해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10위를 달성했다.

선수단 규모와 지원예산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선수들의 탐과 지도자의 헌신, 체육회 및 유관기관의 지지, 시민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스포츠과학 현장밀착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다. 성취된 제도과 역량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각성과 혁신적 도전이 요구된다.

'적소전략' 으로 승부

올해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를 개소했다.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의 융합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것이다.

스포츠 과학의 성패 여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며, 과정의 민주성이 결과의 합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적의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광주가 '대한민국 스포츠도시'로 역사에 남기위해서는 적소전략(Niche strategy)을 활용한 스포츠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래된 생각이다.

에 세 이



김경남
수필가·문학박사

도 허투루 쓰지 않는, 너무나 알찬 '나의 하루'였다. 그 앞에서 나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획에 따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쉬웠지만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웠다. 며칠도 안 돼 기상시간부터 빼그덕거리더니 줄줄이 누수가 이어졌다.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불렀고, 심부름할 시간도 아닌데 자꾸 심부름을 시켰다. 방학이라 사촌들도 놀러 왔고 놀다 보면 계획 같은 건 안중에서 사라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력을 만회하기는커녕 속제도 못 해갈 판이었다.

계획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 내 머리맡에서 언제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았다. 간섭도 통제도 없었다. 아무리 게으름을 부려도 야단치는 법이 없었고 건강건성 건너뛰어도 머리 한 대 쥐어박지 않았다. 소 닭 보듯 대면대면하다가 그마저도 아슬라해질 때쯤이면 방학은 끝이었다.

그때도 때만 되면 으레 계획표를 썼다.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처음의 의식은 당연히 그 일에 바쳐졌다. 다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했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또 실패했다. 실패한 것이 어찌 그뿐이었으랴. 새해·새봄·새학기... 모든 새날마다 새로운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지만 매년 그대로 되기는 어려웠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나는 일류대학생도 되고 프로듀서도 되고, 그리고 부자도 되었을 것이다. 세상을 유랑하며 멋진 여행기도 몇 편쯤 써냈을 것이며, '운조루'의 주인 같은 자선가도 되었을 것이다. 풍광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도 지었을 것이다. 마당가엔 꽃들이 만발했을 것이며 장광 옆 언덕바지엔 앵두나무도 한두 그루 자라고 있을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는 강물이 흘러 이따금 산책을 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해도 그랬을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지리산 높은 산정에 올라 겹겹이 포개진 능선을 바라보고 셋거나, 물담 위에 조그만 돌맹이라도 하나 사뿐 얹어놓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조차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주차장은 이미 만원이었고 차들은 계속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해도, 불어오는 바람은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몸쓸 코로나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렴, 하루쯤은 좋기 바람이라도 쇠고 불 일, 날은 청명하고 단풍은 저리도 고운데 어이 그냥 있을쏘냐. 너도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면 것일까.

계획에도 없이 뜬금없이 가게 된 곳은 구름도 누워간다는 심심 산중 한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천년송'이라 불리는 아주아주 기품 있고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 마을을 수호하는 지킴이 나무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하신 몸이었다. 가지마다 서기가 어린 듯 영험해 보이까지 했다. 그래서인가,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초입에 차를 세워두고 양복 두어 시간쯤 걸었다? 오가는 길에는 단풍이 활활했다. 바람도 햇빛도 쟁쟁 맑은 빛이 돌았다. 계곡을 따라 과연 신선들이나 다녔을 법한 아름다운 길이었다.

나는 드디어 알아차렸다. 그렇게 많은 학습을 하고서도 이제야 깨닫다니 어지간히도 미련했다.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계획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 살아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던가. 그러니 닫힌 문에 집착하지 말고 문이 열리는 곳을 따라 물 흐르듯 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길 이 열리고 있을 테니 성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었다. 계획이 없는 삶은 여전히 맹탕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긋나도 괜찮았다. 누구도 다다라보지 못한 그 길에 정해진 것은 없을 테니...

사 설

멈춤도 양보도 없는 교통문화 참담

어린이집에 가려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세 자녀가 8.5톤 화물차에 치여 유모차에 타고 있던 두살 아이가 현장에서 숨졌다.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4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에 멈춰 선 보호자와 자녀들을 트럭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일어났다. 이곳은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고가났고,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해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건의에 귀를 기울였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들의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도 아쉽다. 출근길 정체를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도로에는 멈춤도, 양보도 없었다. 횡단보도 가운데 유모차와 가족이 위태롭게 멈춰서

있었지만 유모차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운전자는 없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뒤늦게 신호등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앞선 사고때 신호등만 설치됐더라도 참변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전날에는 남구 백운교차로 철거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25톤 트럭이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도 광산구 송정동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신원미상의 노인이 달린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양북 8차로 구간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이지만 연이은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다시금 반성하게 한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거리두기 격상 힘들지만 외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재확산 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전남대병원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확산세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인 양상이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를 보면 어제 300명선을 넘어섰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만 연일 200명대를 기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확산세가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 콜센터, 카페, 직장, 학교, 심지어 아파트단지까지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취약시설 관리만으론 감염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지역 감염병 확산세가 격정스럽다. 전남대병원 발 코로나19 n차 감염 확진자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와 병원측이 병동을 코호트격리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1.5단계가 되면 거의 모든 시설에서 한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유흥시설 영업도 제한된다. 이 정도의 조치로 기세를 타기 시작한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이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안타깝다.

방역당국은 1명의 감염 '재생산인수'가 1.12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수가 1을 넘기면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큰폭으로 커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이거나 생활 측면에서 힘들지만 강력조치가 불가피한 셈이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전남 국민안심병원 늘려야

기지수첩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지역 일각에서는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는 지역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전남대병원은 의료진들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속출하면서 본관 등을 22일까지 사실상 폐쇄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에 위치한 중환자실을 비롯해 입원 병상도 운영이 중단됐다. 병원 측은 해당 병실 입원 환자에 대해 전원 또는 퇴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 등은 당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응급실과 수술실도 접근을 차단해 2차 급성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타 광역단위 지자체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8일 전남대학 교병원에 이어 분원인 화순전남대학 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다.

문제는 전남대병원의 코호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 내 '국민안심병원'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지역 국민안심병원 수는 광산 2곳, 동구 1곳, 서구 1곳, 남구 1곳 등 5개 병원에서 가동했으나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타 광역단위 지자체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8일 전남대학 교병원에 이어 분원인 화순전남대학 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다. 문제는 전남대병원의 코호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역 내 '국민안심병원'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지역 국민안심병원 수는 광산 2곳, 동구 1곳, 서구 1곳, 남구 1곳 등 5개 병원에서 가동했으나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타 광역단위 지자체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8일 전남대학 교병원에 이어 분원인 화순전남대학 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다.



김영민
사회부 부장

이 이들 국민안심병원 병상 수는 전남대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 일부 병원은 야간시간대에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광주지역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국민안심병원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내과의사가 상주해야 하지만 인력 운용사정상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 광역단체인 전북의 경우 전주시에 7개의 국민안심병원에 100병상 이상을 확보했다. 다시말해, 인구수 145만명 이상 광역시 단위 지자체가 인구수 65만명인 시·군 단위 지자체보다 응급의료체계가 빈약한 지경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커져가는 지역민들의 의료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 지 광 장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외모가 어른 같거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청소년 주류 구매 해결책 마련해야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통상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범주를 도모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금주·금연 의무교육을 부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이재복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0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세화광 010-6633-8826 •FAX (062) 720-1080-81 •E-mail jndn@chol.com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32	
사 회 부 (062) 720-1050-54	전 산 실 (062) 720-1033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사 회 2 부 (062) 720-1044	월 간 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문 화 부 (062) 720-1071	판 매 국 (062) 720-1004	
체 육 부 (062) 720-104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1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